

생명의 수호자

장 덕 필(니콜라오) 신부님

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장

I. 의료인과 병자의 날 의미

의료인이라 하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 「장래 커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 인물 중에 「의사가 되겠다」는 답변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의료인이라는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이며 그 직업자체가 인간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보다 더 큰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와 수련이 필요한 사람이다.

「가톨릭 의료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적 진리를 전파하고 의료활동에 있어서 신앙적 의미를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의료역사상 「올바른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4개월이상의 의사 폐업이 있었을 때에도 의사의 특수성과 오랜 수련기간과 연구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사회적 대가를 주장한 바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한편으로는 의료인의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 세인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으로

흠집도 남게 되었다. 물론 잘못되고 준비 안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정의로운 의권투쟁을 위해 올바른 저항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했던 현실을 국민에게 의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가톨릭 의료기관이나 가톨릭 의미를 주는 의원에 있는 가톨릭 의사들에게는 무 종교 의료인과 가톨릭의료인 사이에 차별화 된 의미가 없다는 세인의 비판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의료인들에게 더한 고민 스런 갈등과 양심의 가책을 주었다. 이러한 어려웠던 기회를 통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신원을 묵상하고 자신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병자의 날이 되어야 하겠다. 교회에서 병자의 날을 특별히 지내는 것은 가톨릭의료인과, 가톨릭 의료기관 및 의료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병자에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재 확인하고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2001년도 제9차 병자의 날은 루르드의 성모를 병자의 위로로 기억하며 성모님께 특별한 은총을 병자들을 위해 청하는 날이다. 또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독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다. 각 가톨릭 의료기관별로 병자의 날을 지내왔으나 올해는 가톨릭 의료인의 고유한 임무를 재조명하고 의료인들의 사목적 활성화를 위해 금년 병자의 날을 지내는 행사는 교회 안에 가톨릭 의료인들의 의료사목적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 성서에 나타난 치유의 의미

예수께서 공생활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곳은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마태오 4:23) 고한 구절이라고 본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신」 치유의 행위를 보아야 할 것이다.

성서에 「치유(Healing)하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로 향한 생명을 얻는데 장애요소를 제거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병, 고통, 죽음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도 예수께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하느님 나라의 새 생명을 주신 행위는 치유의 행위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이나 가르침은 사람에게 말로써만 전달 되지만 치유만은 행위로 전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행위는 행동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치유 봉사직을 재현하는 것이 되고 의료인이 치유행위를 수행 할 때 치유 봉사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III. 교회에서 의미하는 의료인

교회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매우 고귀한 직업이다(의료인의 헌장 1항, 교황청 보건사목적평의회, 가톨릭 출판부, 1998)라고 선언하고 있다. 교회의 선언은 의료인이 생명을 다루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적인 투신의 사명을 다하는 소명을 부여 받은 평신도로 인정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가 의료인에게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의료인들에게 인간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생명의 복음 89항)라는 강조로써 의료인의 신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료지식과 기술은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 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 제공하는 행위는 그리스탄적 사랑의 거룩한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하는 뜻은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중에 전문적이고 특별한 의료 사도직(Health Care Apostolate) 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1년 세계 병자의 날 메세지에서 「병자의 날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수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해 기도와 성원하는 날」로 강조 하셨다. 또한 이들이 교회 이름으로 죽음을 넘어 승리를 증거 하는 데에 용기와 격려를 보내셨다.(2001년 병자의 날 메세지, 2000년 8월22일 참조) 따라서 의료인들의 증거하는 삶은 선교 제3천년기에 들어서서 새 복음화(New Evangelization)

를 마련하는 새로운 복음선포 방안과 고통 받는 이들의 품위(The dignity of the suffering person)를 강조하시면서 의료인의 삶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본 받도록 권고 하셨다

Ⅳ. 가톨릭 의료인의 신원(Identity)

1. 가톨릭 의료인은 그 자체로 의료 사도직을 부여 받고 수행하는 특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세례 받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예수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마태오 28:19)이라고 하셨지만 의료인들에게는 열 두 제자를 불러 악령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신(마태오 10:1, 마르코 3:13~19, 루카 6:12~16) 특수한 사명을 주셨다. 말하자면 치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의료 사도직을 주신 것이다. 폴 투어리어(Paul Tourier, M.D)는 나는 의사직을 직업(Job)으로나 사업(Business)으로 보지 않고 소명(Vocation)으로 본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것이며 하느님을 찾게 되는 동기는 결국 치유의 행위(Ultimate Healing)라고 한 말은 의료인에게 현실적 신원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 이라고 보겠다. 교회는 의료인의 치료 직무는 교회의 사목활동과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그 밖에 보건의료

인과 자원 봉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살아 있는 표지가 되어, 병자들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들이 곧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의료인의 헌장 5항)라고 선언하고 있다.

2. 의료인은 행동하는 사랑의 사도이다

예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관계를 명백히 밝히셨다. 강도 맞은 자와 이웃 관계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한 대답에 예수의 선언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신 것이다. 행동하는 사랑을 베푸는 치유의 사명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푸는 행위」이다 의료인의 임무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동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환자중심 진료, 환자권리 존중, 친절환 진료 등은 결국 모두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관계를 본 받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신원이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의원이나 병원, 또는 의료기관은 그 자체가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 새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선택된 장소이며 복음적 희망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장소(2001년 병자의 날 메시지 3항)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신원이 증거 되는 곳이 바로 의료인이 있는 장소와 현장이다.

3. 가톨릭 의료인의 의료윤리 준수 관계

21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의료분야의 발전과 개발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치열한 의료경쟁으로 인한 의료 경영에 있어서도 가톨릭 의료이념이 무관심한 상황에 운영되고 있다. 가톨릭 의료인들은 가톨릭 의료윤리 기준 준수와 현실의 의료 상황 사이에서 의료인들의 윤리적 갈등과 신앙적 양심에 고뇌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는 가톨릭 의료인에게 선언적 윤리적 기준은 생명에 대한 봉사는 도덕률에 충실할 때만 봉사가 된다. 기술적, 전문적 능력 외에도 의료인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환자의 권리에 바탕을 둔 도덕률」을 말한다(의료인 헌장 제6항). 가톨릭 의료윤리에 따른 의료활동과 의술 연구 발전도 인간적 및 그리스도적 가치와 도덕적 양심을 일깨워 주는 확실한 「윤리적, 종교적 양성 한도를 지키는 데에 있다」(생명의 복음 27항)고 교회는 선언한다.

교회의 의학윤리 기준이 생명 연구를 위한 발달과 개발에 장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요한 바오로2세께서도 인간행복 유지위한 봉사에 있어서 새로운 의학지식과 개발은 의학의 과학적 발전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발달의 시대성과 상황에 있어서 인간품위를 완성하는데 있다(요한 바오로 2세의 미국 가톨릭병원협의회 연설, 피닉스 1987)고 말씀하셨다.

V. 가톨릭 의료인의 의료사목 활성화를 위하여

1. 의료인으로서 의미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존경 받는 인격자 이기에 자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가톨릭 의료인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봉사직을 재현하는 행동하는 복음 선포자로 사명을 다하는 의료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3. 현대 교회의 새 복음화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은 의료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수호자, 봉사자로 생명을 주관 하시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복음 선포자 이다.
4. 가톨릭 의료인은 의사와 환자사이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행동하는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자로 자선 의료활동 봉사직과 본당 사목활동의 의료 가정사목 분야에서 자선과 복음적 증거를 주는 숭고한 직책을 가진 자 이다.
5. 가톨릭 의료인의 치유사명을 위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의료윤리 헌장과 수행지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가톨릭 의료인은 병자의 날을 지내며 신원을 재 조명하고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사목적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하여 치유 사목하는 교회 안에 특수하고 전문성 있는 의료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본당 의료 사목에 참여하여 의료인의 특수 사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